

#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와 茶文化 적용의 탐색

## A Study on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ea Culture, for Reunification and Human Nature Education

곽미숙, 주영애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Mi-Sook Kwag(kwag21@hanmail.net), Young-Ae Ju(juyoungae@sungshin.ac.kr)

### 요약

70여년 남북 분단은 기성세대에서 발생하였지만, 통일은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시대의 주도적 주역세력으로서의 청소년이 자기의 시대적 소임을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정치·경제 이론의 학습과 연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의 훈련도 필요하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정서적 이질감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통합과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조절하며 타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공감이 용이하며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남북한 공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공감이 용이하므로 통일·인성교육에 있어서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일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통문화의 구체화 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차문화를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을 위해 적용 가능한 콘텐츠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통일인성교육 | 통일문화콘텐츠 | 전통문화 | 차문화 |

### Abstract

The division of the South and North of 70 years has occurred in the old generation, but the reunification is now handled by the youth gen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ain basic human nature as well as learning and research of r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theory in order for young adolescents as leaders in the unification era to carry out their own duties faithfully and responsibly. In this paper, I rediscover the value of traditional culture in the human nature education that aims for reunification,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and propose tea culture as contents that can be applied to reunification and the human nature education of youth as reunification culture contents as a concrete program of traditional culture do.

■ keyword : | Reunification+Human Nature Education | Traditional Culture | Tea Culture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적 사명으로서 헌법상으로도

명문화되어있는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 70년,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담론을 대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 통일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 학교의 통일교육, 민·관 단체 등에 의한

통일관련 연구와 심포지엄, 지방단체의 지역축제와 행사로서의 통일문화 등 통일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통일의식은 오히려 낮아지고 남북한 주민의 친근감 관련 조사내용에서도 정서적 이질감과 반목, 불신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보이고 있다[1].

청소년들의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의식 또한 전쟁의 위협 등에서 벗어나는 것과 국력의 강화라는 이성적이고 합목적적이며, 나아가 실리적인 차원의 인식이며, 역사적 한민족공동체의 회복이라든가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등의 감성적 시각은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청소년의 학교 통일교육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능력 함양(인지적 측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과 적극성 함양(정의적 측면), 통일을 위한 실천의지와 실천능력 함양(행동적 측면)이 통합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3]. 청소년이 시대적 소임으로 통일을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학습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의 기본적 인성 훈련이 필요하며, 이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정서적 이질감과 불신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완성해나가는 데 갈등을 완화하고 조절하며 타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공감에 용이하며 가치 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에 남북한 공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에 대한 공감과 언어의 유사성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통문화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공감대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민족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공동체에 관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구심점으로 창조적 계승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전통문화와 차문화 속에 담겨 있는 인성 덕목을 도출하여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차문화가 통일문화콘텐츠로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에 접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고에서 통일교육은 반드시 인성교육이 근본바탕이 되는 통합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통일·인성교육으로 범주화하였다.

통일관련 고찰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홈페이지 자료와 더불어 본 연구자가 통일관련 세미나와 포럼 행사에 참여하여 취합한 통일관련 실무자들의 강의와 토론 등을 활용하였다. 통일교육 선행연구와 중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과 이후 개정된 교과내용, 통일 교육원의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협회의 조사 자료와 「헌법」 및 관련 법률 등도 고찰하였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청소년 인성관련 선행연구와 「인성교육진흥법」을 참고하고,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전통과 문화를 구분하여 선행 연구자들의 단행본과 논문, 그리고 「문화기본법」등을 참고로 전통문화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차문화(茶文化)에 대해서는 관련 단행본, 자료집, 정기간행물 등과 관련 논문을 활용하였고, 청소년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내용은 단행본과 선행연구 논문 등을 고찰하고 논의하였다.

## II. 통일·인성교육

### 1. 통일교육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前文)에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통일에 대한 사명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와 제66조에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관한 성실한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4].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5],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통일교육 기본 계획의 실천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6].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

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5].

즉 통일교육은 민간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임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정책과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의무이자 필수적인 교육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며, 여기에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 관한 교육,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7]. 통일교육은 분단 이후 교육의 명칭과 내용이 멸공교육, 반공교육, 승공교육에서 현재는 통일교육으로 바뀌었다. 2000년 전후로 사회·문화적 접근의 통일교육 내용이 시도되었고, 특히 7차 교육과정시기(1997~현재)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 전통문화 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8].

통일교육의 내용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① 평화적 통일, ②자유민주적 방식에 의한 통일, ③사회통합으로서의 통일, ④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민주시민으로서 상호존중의 통일, ⑤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가치 지향적 통일을 원칙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통일교육원의 '2014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에 따르면, 통일교육의 목표는 ① 미래 지향적 통일관, ② 건전한 안보관, ③ 균형 있는 북한관이며, 통일교육의 내용은 ① 통일문제의 이해, ② 북한의 이해, ③ 통일환경의 이해, ④ 통일정책, ⑤ 통일을 위한 과제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어있다[9]. 통일교육의 내용은 지·정·의(知·情·意)로 통합된 통일교육으로 학습자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손발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취해야한다[10]. 청소년이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 갖는 불만은 통일교육의 방법에 대한 것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이 지루하고 어려우며, 선생님의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통일교육의 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TV등 시각적 매체를 활용한 영화나 드라마 등이 높게 나타나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조사에 따르면 TV 뉴스가(57.6%) 학교수업(21.8%)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1].

청소년들은 현장학습 중심의 통일교육을 강하게 원

하고 북한 방문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싶어 하고,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청소년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12]. 체험을 곁들인 통일교육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으로서 학교를 벗어나는 공간에서도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통일은 일정기간동안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실천능력이 갖춰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10]. 청소년의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공동체의식은 민족동질성 회복이 선행되어야한다. 민족의 동질성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된다. 첫째, 다문화사회로서 이주민과의 동질성근거와 둘째,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남북한주민의 민족동질성의 여부이다. 통일이 될 때, 북한주민들과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비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민족동질성 회복이란 되돌아갈 지점을 상정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60여 년간 남북 간의 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서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온 역사적 경험은 '되돌아갈 지점'이 어디인지 불분명하게 한다 [13]거나 분단체제는 분단국가만을 낳은 것이 아니라 분단민족을 낳았으며 따라서 분단국가의 통일이 자동적으로 분단민족의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14]고 분석하여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민족동질성은 자동적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의 공감대가 없으므로, 오히려 이질화된 사회의 재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남북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과 가치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해온 공동의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공유는 더 깊고 크다. 오랜 세월동안 공유해온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으로부터 통일을 위한 통합과 공감대 형성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청소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의 주제로서 청소년의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것과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통합의 내용이어야 한다. 통일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가 해결해야할 민족사적 과제이자, 헌법상의 과제이기도하다. 통일교육은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믿음

과 확신을 갖고 그 내용과 정책 등을 수립하고, 지·정·의(知·情·意)가 조화되도록 이끌어 가야만 한다.

## 2. 인성교육

### 2.1 인성의 개념

인성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인성은 ‘성격’, ‘인격’, ‘마음’, ‘본성’ 또는 ‘기질’과 동의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심리학에서 인성은 성격을 의미하고, 정신의학분야에서의 인성은 인격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학에서는 인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며[15], 영어로는 character 또는 personality로 번역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인성이란 타고난 인간의 본질로서 누구나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며 인격은 그러한 인성이 드러나도록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 다듬어지고 밝혀진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인성이 훌륭하다는 말보다는 인격이나 인품이 훌륭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인성과 성격이라는 말을 혼용하는데, 본 연구자는 인성을 타고난 본연지성(本然之性)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인성과 성격, 인성교육을 구분한다. 성격이란 타고난 본성으로서의 인성이 사람이나 환경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기질이다. 또한 인성교육은 인성이 발휘되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인성 그 자체는 아니라고 구분한다. 따라서 타고난 본성으로서의 인성은 맹자의 성선설(性善說)과 순자의 성악설(性惡說)을 보더라도 교육의 내용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인간의 본성으로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중용에서는 인성을 “하늘이 명한 것을 성(天命之謂性)이라 한다고 하여 천부적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사덕(四德)과 양능(良能)과 양지(良知)로 이루어졌다”[15]고 언급하고 있다.

### 2.2 인성교육의 내용

인성교육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인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만큼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과 방법도 다양하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차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16].

‘인성’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인성교육은 가치지향적이다. 인성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이 잘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인간의 전면적 조화적 발전을 추구하며 초교과적 통합교과적인 접근을 요하는 교육이다[17].

인성교육은 성격 또는 인격의 발달을 돕는 교육적 활동이며 주로 비행식적인 교과과정이나 인간관계로서 [15] 마음을 교육하고 인간이 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즉, 지(知),정(情),의(意)의 마음교육과 인간됨의 가치교육이 되어야 한다[18]. 인성의 덕목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인성교육 시 요구되는 인성덕목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19]

학자	인성덕목
허경철, 조난심 외 (1994)	기본생활습관: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 위생, 물자절약 자아확립:근면, 성실, 자주, 정직 효도와 경애 :기본예절, 효도, 경애 공동체의식:질서, 협동, 준법, 타인존중, 책임, 봉사, 정의감
조연순 외 (1998)	자기존중의식 : 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표현, 자기통제 민주시민의식 : 준법정신, 봉사정신, 협동정신, 책임감, 정의감, 애국심, 환경보호의식 타인존중의식: 권위의 존중과 수용, 예의범절, 효, 사랑, 배려, 정직, 신뢰
박효정 외 (2000)	정직, 타인배려(연민, 관용, 양보, 친절, 봉사, 헌신), 공공질서의식(준법의식, 공중질서 준수), 경로효친, 생명존중, 환경보호의식, 성윤리, 정의(공정성, 용기, 민주성), 평등의식, 사회연대의식(책임과 협동, 공익 우선, 신의), 애국애족(나라사랑, 민족사랑, 인류애), 절제(절약, 자기통제, 인내)
강선보 외 (2008)	전인성, 도덕성, 영성, 생명성, 창의성, 관계성, 민주 시민성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2호 (2015)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본연지성(本然之性)이며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으로서의 인성은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가치가 개입되기 어려운 본질이므로 가치중립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인성교육은 인성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기관의 목표가 개입되므로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인성교육의 출발점은 수기(修己)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치를 내포해야 한다. 인성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 알고 자신의 성품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지속성과 반복성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인성교육의 핵심은 가정과 연계성에 있다. 부모와 가족의 삶을 통해 저절로 학습되고 전해지는 것이 온전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알게 된 인성교육 내용을 교육현장과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성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에 걸맞게 인성의 의미를 확장된 시각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야 한다[17].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내용과 방법은 시대적, 환경적, 사회·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세계시민의 자질로서 요구되는 인성과 통일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에게 요구되는 인성이 고려된 것이어야 한다.

### 3. 통일·인성교육

#### 3.1 통일·인성교육의 개념

통일의 준비와 과제는 체제 및 삶의 방식의 차이와 정서적 이질감 극복, 그리고 공감대 형성과 동질감 회복의 문제에 대해 인지적 측면의 통일교육과 정의적(情義的) 측면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등에 관한 가치관과 태도[5],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제2조 제2항 제4호에서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의 규정[20]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통일시대 주역으로서의 청소년의 통일교육에 있어서 일정한 자질에 대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의 자질과 통일시민의 자질, 그리고 세

계시민의 자질은 각각 개별적인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모두 인성이 근본적 바탕으로 요구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는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16]라고 규정함으로써 전통사회의 덕목의 계승과 더불어 민주시민의 자질, 통일시민의 자질, 세계시민의 자질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성의 덕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주로 도덕교과 및 사회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치우쳐 정의적·행동적 측면의 교육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통일교육과 인성교육을 별개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은 근본적인 철학적 바탕으로서 인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인성교육을 근본 바탕으로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통일·인성교육’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 통일·인성교육은 통일교육에 있어서 적합한 인성덕목을 발견하고 수용하게 하는 것이며, 청소년 자신의 인성덕목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 본다.

첫째, 통일·인성교육은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이다.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동질감과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핵심 가치·덕목” 중에서 ‘예(禮)’와 ‘효(孝)’는 한민족이 공감할 수 있는 전통사회의 인성 덕목이다. 이는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禮)와 효(孝)는 공감(共感)의 실천으로 의의를 갖고 있으며, 인내의 실천적 인성덕목 내용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녀야 할 인성으로서 현대적의의가 있는 전통적 가치로서 인내를 제시하였다.

둘째, 통일·인성교육은 통일시대를 위한 청소년의 통일리더십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의 ‘정직’과 ‘책임’의 인성덕목은 특히 리더가 지녀야 할 자질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은 인간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능력으로서[21],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조직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지식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보다 공동체 구성원 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를 인정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의 근거로서 정직함과 책임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셋째, 통일·인성교육은 사회·문화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인성교육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인성 덕목이며 핵심가치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열거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 가운데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은 통일과 다문화,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성덕목이다.

### 3.2 통일·인성교육의 방향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인성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첫째로,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통일리더십 양성에 지향점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시대적, 환경적 특성의 이해와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청소년 모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은 인내와 배려, 책임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통일·인성교육의 방향은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남북 간의 반목을 지양하고 갈등을 관리하여 화합하고 협력하여 상생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 다민족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로서 정서적 이질감과 소외의 문제, 다양한 계층과 구성원간의 분리감과 차별, 불신, 반목의 감정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과 더불어 동시에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문화적 통합에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 중에서 존중·배려·소통·협동의 덕목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로, 통일·인성교육의 방향은 평화 지향적이어야 한다. 「헌법」의 전문(前文)에서도 “항구적인 세계 평

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다[4].

세계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평화의 지향이 절실하며, 세계시민의 자질로서 평화 지향적 가치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인성교육의 방향은 청소년의 평화 지향적 가치관의 정립과 민주시민의 자질,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III. 전통문화와 茶文化

### 1. 전통문화의 개념과 인식

전통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문구를 두어 전통과 폐습을 구분하고, 전통의 계승성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4], 「문화기본법」 제9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하기 위한 노력[22],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23].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에서도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과 동법 제18조 제2호에서는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명시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24]. 헌법과 각 법률에서는 국가의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정책 수립과 노력을 강조하여 전통문화를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통이란 역사를 통한 한 민족 집단의 문화전승과정에서 변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여 전승 가치를 갖는 문화를 의미한다[25]. 즉, 전통이란 가치와 더불어 일정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전승되는 것이며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 오면서 현재의 삶에 통용되는 것이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제,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

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22].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Tylor 1871:1)는 《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를 “넓은 민족지학(民族誌學)의 의미에서 문화 또는 문명이란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기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이다”라고 정의한다[26]. 문화란 언어나 관습, 제도와 같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학습되는 지식체계이다. 문화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유형·무형으로 민족의 특성을 형성하는 것이며, 또한 역사적인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화는 어느 사회의 전형적인 생활양식이다[25]. 문화는 문명이나 교양, 언론과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예술 또는 공연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27]. 문화는 공동체성과 소통을 통한 공유를 전제한다. 개인이 개별적, 일회적으로 하는 행위는 문화라고 할 수 없지만 유기적 관계 안에서 공감되고 공유될 때는 문화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화는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체 문화가 되고 민족 문화가 되며 지속성을 통하여 역사적 전통이 된다. 역사적 전통과 맥락을 함께한 문화는 전통문화가 되는 것이다.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전통은 인습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인습은 역사의 대사기능에 있어 부패한 자로 버려질 운명에 있고, 또 버려야 할 것이지만, 전통은 새로운 생명의 원천으로서 계승되어야 할 풍습이요 문화의 소산이다. 전통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살아 있는 과거이자 현실의 가치관과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다[28]. 전통문화란 우리의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구실을 하며 유기체적 성격을 띤다[29]. 즉,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시공을 함께한 공동체의 삶 가운데 녹아 있는 가치 내재적인 표현양식이다.

## 2. 茶文化의 개념과 역사

### 2.1 茶文化의 개념

‘차’는 원래 지금 중국의 광둥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말이다. 중국 복건성 지역에서는 ‘테’라고 하였다. ‘차’는 한국, 일본, 몽고, 티벳, 인도, 러시아 등으로 전파

되었으며, ‘테’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중국 복건성 하문으로부터 해로를 통해 차를 수입하면서 유럽으로 전파되어 영어의 ‘티’(tea)로 불리게 되었다[30]. 「茶」는 「茗」 또는 「薺」과 같은 글자로 쓰이기도 한다[31]. 한국의 차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와 ‘다’를 혼용하고 있다. 광의의 ‘차’는 모든 일반적인 기호음료를 통칭하여 대용차(代用茶)와 커피까지도 ‘차’라고 부르고, 협의의 ‘차’는 식물학자 린네가 분류한 *Camellia sinensis* 라는 학명을 가진 차나무로서, 식물학 상 산다아과(山茶亞科)에 속하는 상록 관엽수에 해당한다. 차나무의 품종은 온대지역에서 잘 자라는 소엽종인 중국종으로 *Camellia sinensis var. sinensis*가 있으며 녹차를 만들기 적합하고, 열대지역에서 잘 자라는 대엽종인 아삼종으로 *Camellia sinensis var. assamica*가 있는데 이 품종은 홍차에 적합하다[30].

본고에서의 ‘차’는 협의의 ‘차’로 차잎을 채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마시는 것에 한정하고, 차문화의 개념상 ‘차’를 부를 때는 협의의 ‘차’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茶文化란 무엇인가? 茶文化는 공간 속에서 차와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사람과 차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유무형의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제다(製茶)·팽다(烹茶)·음다(飲茶)의 요소 또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32]. 차생활은 예(禮)와 도(道) 그리고 예(藝)의 차원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33]. 예(禮)와 도(道) 그리고 예(藝)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차문화의 가치이지만 그 강조되어지는 정도는 서로 달라서 각 나라 차문화의 성격을 특징짓는 요소가 된다. 차문화는 복합적인 문화로서 도구문화와 규범문화, 관념문화의 모든 요소가 내재되어있고 차문화의 충족조건으로 차(茶)와 차제구(茶諸具), 차인층(茶人層)[34]을 제시하는 견해와 차와 차제구와 더불어 차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35] 등이 있다. 차문화의 근본정신에 대한 연구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내포하며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은 자연환경과 인간관계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 2.2 茶文化의 역사

차의 기원은 중국의 육우(陸羽, 733~804)가 쓴 『다경(茶經)』의 기록에 의하면, 음차(飲茶)는 염제 신농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적고 있으며,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의하면, ‘신농이 백 가지 초목을 맛보다가 하루는 72가지의 독을 먹었는데, 도(茶, 즉茶)를 얻어 해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차나무의 원산지는 운남성 서남지역으로 사천성 일대로서 그 지방에서는 찻잎을 식용, 약용으로 섭취하고 당나라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차를 음용하며 한국, 일본, 티베트 등으로 전파하였다[31].

고구려와 백제의 차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기록은 없으며 출토된 유물이나 벽화 등을 통하여 추정해 볼 뿐이다. 고구려의 무덤에서 출토된 병차(餅茶), 고구려 무용총 벽화와 각저총의 벽화, 불교의 전래로 미루어 보면 고구려인의 차생활을 추측할 수 있다. 백제는 4세기에 불교를 수용하여 6세기에는 불교를 진흥시켰는데, 기후나 지리,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과 문화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일찍부터 음차풍속이 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전국 차생산지 35곳 중 27개 지역이 백제 속하고 인도나 중국 등과의 해상교역의 성행, 또한 강진을 중심으로 한 도요지 등을 보면 차에 관한 정보나 상품의 교역과 차생활을 추측할 수 있다[31]. 최초의 공식적 기록으로서 『삼국사기』에 의하면 통일신라의 “흥덕왕 3년(828)에 당에 사신으로 갔던 대림이 돌아오면서 차의 씨를 가져왔으므로 왕은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또한 『삼국사기』에, 「차는 선덕여왕(632-647) 때부터 있었다(茶自善德王時有之)」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시대 음차의 주체는 왕과 귀족, 승려나 선비 층인 학자와 화랑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풍류도는 신라의 근본정신이 되며, 또한 차문화의 정신이 되기도 하였다[36][37]. 통일신라의 차문화는 불교의 승려들뿐만 아니라 귀족과 선비, 일반 백성에게도 널리 전파되었고, 부처에게 공양으로 제를 올리는 제의(祭儀)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중요한 제물이 되었다.

고려시대는 불교문화의 융성과 더불어 한국 차문화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불교의식은 물론이거

니와 국가의식에도 진다예식(進茶禮式)이 필수적으로 따랐다[30]. 궁정에는 차를 공급하는 다방(茶房)이라는 관청이 생겼고, 큰 사원 주위에는 차를 생산하여 바치는 다촌(茶村)이 형성되었다. 특별히 차의 성질을 적용한 중형주대의(重刑奏對義)나 다시(茶時)는 고려의 독특한 차문화의 일면이다. 고려시대의 차문화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례의 차로써 특징이 있으며, 고려 말로 갈수록 종교의 색채는 옅어지고 유교의 색채가 강해졌다. 음차(飲茶)를 수기(修己)와 치심(治心)의 방편으로 활용한 측면은 고려시대 차문화의 유교적인 일면을 보여준다[38].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승유억불정책으로 불교를 배척하고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유교사상을 받아 들였다. 조선은 왕실의 종묘나 봉선다례 위주로 변화되어 왕실 제례나 관혼상제의 궁중다례와 사신 맞이 행사에서 접빈다례(接賓茶禮)로 나타났다. 조선에 있어서는 차문화의 주체가 승려에서 선비들로 바뀌어 유학자 중심의 차문화를 형성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백성들의 생활은 곤궁해졌고 차에 관한 세금이 증가하여 차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였다. 문인들도 차세가 무서워 마음대로 차를 마시기 어렵고 산중의 승려들도 세금이 무서워 마시던 차를 숨길 정도였다. 한편 18세기19세기 차문화는 지식인들의 문화적 성향과 더불어 일상 속에 수용되고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안으로는 일상적 차생활 영위를 도모하고 밖으로는 다양한 문화 활동 및 교류의 장에서 음차라는 공통된 생활양식을 매개로 하여 문화적 소통을 모색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나갔다[39].

한국차문화의 근본정신은 차사(茶事)를 통해 반복적인 신체적 동작과 더불어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정신적 경지에 들 수 있으며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찾자리로 공감과 소통을 통한 교류의 자리로 삼았다는 것이다.

## 3. 차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인성

### 3.1 차의 성품

차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품은 차의 물질적 성분과 더불어 그에 근거하여 나오게 되는 생리적 효능과 정신적 기능의 측면이 있다. 차의 생리적 효능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음차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음차생활은 차생활이 되어 차문화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즉 차생활은 차의 재배에서 차의 음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학적 요인, 역사적 요인, 문화적 요인, 예술적 요인과 차에 관한 법도(法道), 의식(儀式), 예절(禮節), 행다(行茶) 등을 규범화하여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40]. 차의 물질적 성분에 따른 생리적 효능에 근거하여 정신적 기능과 차의 성품이 나오며 행다(行茶) 즉, 차생활을 통해 차의 성품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의 성품을 근본으로 하여 차의 정신과 더불어 차를 음용하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인성덕목을 함양하다는 가치를 도출 할 수 있다.

이목(寒齋 李穆)의 『다부(茶賦)』에서 차가 지나는 탁월한 기질은 ① 차나무의 직근성, ② 차꽃의 정직성, ③ 차 열매의 의리, ④ 차성에서 터득해낸 차의 정신이며, 이는 선비들의 고결한 생활철학을 말한다[35]. 초의(草衣 張意恂, 1786~1866)는 『동다송』에서 차는 군자와 같아서 사사로움이 없으며 차의 정신은 중정(中正)의 도(道)를 찾는 것이다[41]. 육우(陸羽)는 『다경(茶經)』 「일지원」에서 차는 그 성품이 지극히 차서 행실이 바르고 검소하고 겸허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이 마시기에 적합하다고하여 정행검덕(精行儉德)의 정신적 측면을 부각시켰다[42].

차의 정신을 한국에서는 中, 正을, 일본에서는 和, 敬, 清, 寂을, 중국에서는 精, 行, 儉, 德을 강조한다[43].

### 3.2 차의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인성

차의 성품에 기인하여 차를 매개로 지향할 덕목은 일상생활에서 참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실천의 기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덕목의 의미는 삶에서 인성으로서 드러나는 데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례교육이 배려성과 절제성, 존중과 협동, 정서적 안정감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절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4-49]. 청소년이 다례교육을 통해 차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미 전통문화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차문화를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인성덕목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내와 배려, 책임을 차문화 인성의 출발점

으로 삼고자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핵심가치 덕목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인내와 배려, 책임으로 압축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차의 정신을 발견하고, 차의 정신에 입각하여 도출된 인성의 덕목을 삶에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V.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와 茶文化

### 1. 통일을 대비한 전통문화

남북분단 70여년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체제하에서의 통일논의에 관한 한계는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통일논의를 모색하게 했다. 통일독일이 민족문화에 대한 동질성의 확인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완충지대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통일문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임을 일깨워주었다.

1985년 남북한 간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은 통일문화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상황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콘텐츠로서 통일문화가 논의 되어왔다. 통일문화는 남과 북이 함께 자주 만나서 교류하며 나누는 가운데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로서의 완충지대는 바로 공동의 역사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전통문화이다. 전통문화는 분단시기동안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감을 찾을 수 있는 가치를 내포한다.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두어 남북교류 문제를 조정·심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한 문화교류의 원칙’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발표한 바 있다. 첫째, 분단 이전의 민족전통문화의 우선교류, 둘째 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배제, 셋째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한 표현방법 지양, 넷째 쉽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 다섯째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등이다

[50]. 통일부 간행물자료인 「월간 남북교류동향」(2014년10월호) 중 ‘남북협력사업’항목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통일부 승인의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은 [표2]과 같이 총 156건이 있다.

표 2. 1991~2014년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 현황[51]

분야	문화예술분야						종교 분야	체육 분야	교육 학술	기타	합계
	문화 유산	문화 언어	시각 예술	공연 예술	문화 산업	소계					
승인 사업	20	6	7	20	43	96	11	24	12	13	156

문화유산 부문의 협력 승인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남과 북 모두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동유산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이데올로기의 개입이 어려워 남과 북의 교류협력이 용이하기 때문이다[51]. 승인 협력사업은 2008년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맞이하여 거의 중단되거나 종료되었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작업이다. 청소년 관련 사회문화사업은 (사)한국청소년사랑회의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초청공연[52] 외에는 축구경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사회문화교류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53].

남북한 협력의 사회문화 분야 확장을 위해 전통문화를 통일문화콘텐츠로서 제안한다. 전통문화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완충지대라 할 수 있고, 그 가치는 한류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청소년들에게도 한류는 하나의 문화로 소개되고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누리고 싶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이 되었다.

통일을 대비하는 콘텐츠로서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시도는 계속 되고 있으며[54]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정서적 공감대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러한 통일문화콘텐츠로서 제시되는 전통문화는 씨름 등의 스포츠 활동을 비롯하여 전통문화유산·유적지 탐방, 전통미술품과 공예품의 전시, 세시풍속, 민속놀이, 국악, 한지공예, 한복, 음식문화, 차문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자랑할 만한 생활문화로서 전통적 한국다도는 오랜 세월동안 이 땅과 기후 속에서 형성된 한국 사상과 종교가 배어 있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부분적 요소에서 조형, 공예, 시가(詩歌), 주악 등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적 정체성[55]을 표현할 수 있는 전통문화이다.

## 2.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에의 茶文化 적용

### 2.1 茶文化 적용의 의의

남북한 청소년 모두에게 차문화사 고찰을 통해 발견된 차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정신을 토대로 한 인성으로서의 인내, 배려, 책임은 학교와 가정에서도이 연계하여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있어야한다.

통일·인성교육에 있어서 차문화를 적용하는 것은 첫째, 차생활화 속에서 차문화의 주체로서 전통의 가치를 발견하고 현재에 적용하며 미래에도 창조적 계승을 할 수 있는 가치를 담고 있다. 둘째, 차문화에 내재된 전통적 가치를 통한 공감대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소통하는 사회통합에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다.

### 2.2 茶文化에 내재되어 있는 인성과 그 적용

#### 2.2.1 인내(忍耐)

인간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치를 발견하는 존재이다. 미래의 가치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소망, 희망 등 자신의 삶의 목적 또는 일정한 기대 등으로 표현된다. 인내는 참고 견딤, 절제, 그리고 기다림의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인내의 사전적 의미는 ‘괴로움이나 노여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고[56], 기대하는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심지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바심을 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이 ‘묵묵히 기다린다’는 것이다[57].

21세기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 이외에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지구력이 요구된다. 인내는 한국인의 삶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인 덕목으로 전통교육에서의 모든 행실과 인간관계에는 인내가 근본바탕이 되어 왔다. 개인적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는 예(禮)로써 표현할 수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의 인내는 절서로써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인성으로서 인·의(仁·義)의 실천 덕목인 예(禮)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예의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며 참고 견디는 시간을 통해 즉자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 욕구들을 조절하며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된다. 인내는 기다리는 행위를 통하여 길러지는 인성이다. 기다림은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를 향해 속도를 늦추거나 다른 대상에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기다림에는 일정한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며 공동의 약속 이행을 전제 한다. 현재의 욕구를 조절하고 절제를 하며, 즉자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을 진정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다림을 통한 인내는 개인의 자아성취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성이다.

이러한 인내는 차생활을 통해 발견하고 신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인내를 통한 통일·인성교육을 하는 경우, 차를 마시면서 인내와 기다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 느낌을 나누며 북한이탈청소년과 남북한 문화 차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분단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겪는 현실 문제와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동 이해를 확대할 수 있다. 차 생활 가운데에는 때를 맞춰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이러한 순간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익힌다면 중용에서 말하는 시중(時中)을 알게 될 것이며, 이 또한 한국차문화의 정신으로서의 중정(中正)을 익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 2.2.2 배려(配慮)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줌, ②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피 주다’로 정의되며, 영어로는 care 또는 caring인데[58] 이에 대한 번역은 배려, 보살핌, 돌봄 등으로 학자들 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길리건(C. Gilligan)은 배려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의하기보

다는 정의 도덕성에 대비되는 도덕성으로서 배려윤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인간관계나 상호존성, 책임, 유대, 애착, 동정심, 사랑을 중요시하는 여성적 도덕성을 배려윤리로 정의한다[59].

나딩스(N. Noddings)는 배려는 부담을 갖는 정신적 상태로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상태이다[60]. 배려는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것이다.

마음의 나눔은 공감으로 표현되며 공감을 통하여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좁혀주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한다. 마음의 나눔 즉, 공감은 물질의 나눔으로 실천하게하며 나의 이익을 양보하게 한다. 나눔은 반드시 전승해야할 우리의 전통문화이다. 걸명(乞茗)이나 사다(謝茶)라는 차문화를 통해서도 나눔의 문화가 드러난다. 다산(茶山)과 혜장(惠藏), 초의(草衣)와 추사(秋史)로 이어지는 차의 제조와 걸명에 얽힌 이런 저런 시문들의 존재는, 선인들의 차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차와 함께 오간 마음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어, 옛 차인들의 풍류와 멋을 한층 느낄 수 있다[61]. 나눔은 상대방과 공동체에 대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이 전제가 된다.

차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차를 우려내어 마시는 경우 차를 매개로 서로에 대한 어색함이나 거리감을 좁혀주고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공감이 발생하게 되고 소통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는 공동체정체성을 위한 전제가 된다. 차 자리에서의 나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체험하고 차 우림의 행위와 차를 마심으로 마음을 교감하는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진다. 차를 매개로하여 나눔을 공감할 수 있고 서로의 다름과 같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과 소통이 바탕이 된다면 진정한 배려가 발현될 수 있다.

배려와 관련한 통일·인성교육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인정, 그리고 수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과 극복할 수 있는 것

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인지적측면의 논리적 이해뿐만 아니라 배려 인성을 통해 정의적 측면에서 수용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배려는 나눔을 통해 실현되어왔던 귀한 전통이다.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공홀과 관용의 배려는 현재의 전통으로 계승해야하는 인성이다.

### 2.2.3 책임(責任)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 ‘맡아서 행하여야 할 의무나 임무’라고 하며, 책임감은 책임을 중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고 책임성은 책임을 지려는 성질이나 태도를 의미한다[58]. 일반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으로서 행해지는 책임과 관련된 교육은 책임감 교육이 대부분이다. 본 고에서의 책임은 인성으로서의 책임성을 의미한다. 책임이란 개인 자신이나 공동체에게 맡겨진 일이나 임무를 성실하게 끝까지 수행하여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책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위로,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의 귀속까지 감당하는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기성세대가 저야하는 책임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귀속의 책임 영역은 청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성교육에서 책임성을 기르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과제에 대해 소임을 다하려는 태도의 훈련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책임은 소속감과 주인의식,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정체감을 가질 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 책임지려는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며,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 신뢰가 있을 때 정성을 다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발현된다. 책임은 현재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시민 자질이며, 리더십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통일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성이다.

찾자리에서 함양할 수 있는 책임은 어떻게 가능할까? 찾자리를 주관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차를 대접하기 위해 찾자리를 마련하고 차를 정성껏 우려 나누어

낸다. 차를 나누어 낼 때 색, 향, 미가 치우침 없이 골고루 나뉘 질 수 있도록 차의 양과 순서를 조절한다. 차를 마시는 동안의 대화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일도 중요한데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차를 다 마신 후에 다관과 찻잔등 차도구들을 정리한다. 찻자리 전 과정에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해당 찻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주도성으로 책임성이 함양될 수 있다. 통일·인성교육에서의 책임에 관한 인성교육은 통일의 주도적 주역으로서 책임성을 함양하는데 집중해야한다.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가 이루어질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의 교류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고, 북한이탈청소년을 찾자리에 초대하여 찻자리 준비에서부터 나눔의 실천까지 주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V. 결론 및 제언

앞으로 통일의 실질적 주체는 남북한의 청소년들이다.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통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 인성 함양은 첫째로, 민족동질성회복을 통한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 둘째, 사회·문화적 통합에의 노력, 셋째, 청소년을 위한 통일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통일을 위한 주체의 범위는 더욱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며 넓어지고 있다. 통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이끌어가는 세대에 대한 준비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대두되었음을 유념해야한다.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된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속성이 낮아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 남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관계의 지속뿐만 아니라 그 범위 또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해서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공통분모와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 유구한

역사를 함께한 한민족으로서의 공감대 형성의 공통분모는 전통문화이며, 다양한 전통문화콘텐츠 가운데서도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생활문화콘텐츠로서 차문화의 적용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차문화의 특징은 첫째, 인간 삶의 주기를 관혼상제(冠婚喪祭)로서 일생의례(一生儀禮)에 차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차문화가 일상의 삶으로 수용되었다. 둘째, 차를 매개로 인간관계의 교류가 확대되었으며, 셋째, 음차과정(飲茶過程)을 통해 수기(修己)치심(治心)이 가능하였다. 넷째로, 차선일여(茶禪一如)나 오심지차(吾心之茶)와 같은 합일사상(合一思想) 또는 대동사상(大同思想)이 차문화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다섯째로, 차문화는 종합예술성을 비롯하여 복합문화적 성격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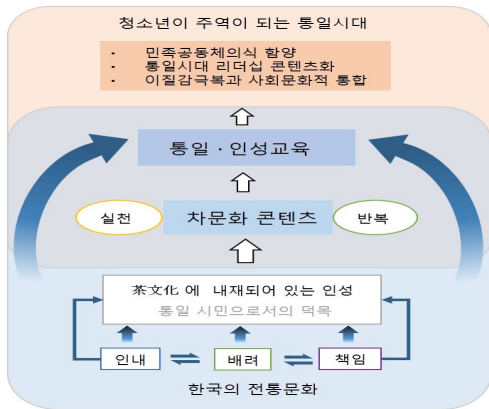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茶文化의 적용[62]

한국차문화의 역사성과 전통성하에 그 근본정신인 인내와 배려, 그리고 책임 인성을 도출하여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에의 적용을 제안한다. 이는 [그림 1] 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전통문화로서의 차문화가 통일문화이자 통일문화콘텐츠로서 통일·인성교육에의 적용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제제기에 머무는 한계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찾자리를 통한 구체적인 통일·인성 함양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차후 프

로그래밍의 효과성 검증의 실험연구도 기대하는 바다.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통일·인성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차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문화의 범주에서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변화,” 통일과 평화, 제5권, 제2호, pp.74-100, 2013.
- [2] 변중현, “청소년의 통일의식과 학교 통일교육의 진화,” 윤리교육연구, 제29권, pp.165-186, 2012.
- [3]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통일문제연구, 제57호, pp.187-219, 2012.
- [4] <http://www.scourt.go.kr/supreme/>
- [5] <http://www.scourt.go.kr/supreme/>
- [6] <http://www.scourt.go.kr/supreme/>
- [7] 통일부, 2004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 2003.
- [8] 조희제, 통일교육이론과 실제방법론, 선인, 2011.
- [9] 통일부통일교육원, 2014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원, 2014.
- [10] 배한동, 새로운 통일교육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 [11] 김형주, 권재기,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 [12] 박보영, “청소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학습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학습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5권, 제2호, pp.69-92, 2010.
- [13] 강원택,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나남출판사, 2011.
- [14] 임혁백,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한울아카데미, 2014.
- [15] 홍경자, 청소년의 인성교육, 학지사, 2004.
- [16] <http://www.scourt.go.kr/supreme/>
- [17]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김영래, 고미숙,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

- 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30집, pp.1-38, 2008.
- [18] 남궁달화, *인성교육론*, 문음사, 1999.
- [19] 맹소윤, *청소년 인성교육의 특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다도교육과 관련하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0] <http://www.scourt.go.kr/supreme/>
- [21] 김정효, *아동 리더십-인성교육의 열쇠-*, 교육과학사, 2006.
- [22] <http://www.scourt.go.kr/supreme/>
- [23] <http://www.scourt.go.kr/supreme/>
- [24] <http://www.scourt.go.kr/supreme/>
- [25] 이길표, 주영애, 1999,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신광출판사, 1999.
- [26] 유태용, *문화란 무엇인가*, 학연문화사, 1999.
- [27] 전경수, *문화의 이해*, 일지사, 1994.
- [28] 조지훈, *한국문화사서설*, 탐구당, 1972.
- [29] 이기백, “한국의 전통문화 : 어떻게 볼 것인가 -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서강인문논총*, 제7권, pp.3-20, 1997.
- [30] 주영애, 이현숙, 최배영, 박성선, 김진숙, 이향숙, 최진영, *세계의 차문화*,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 [31] 정영선, *한국차문화*, 너럭바위, 2007.
- [32] 김효은, *한국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3] 이일희, *생태적 관점에서 본 차문화 공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34] 김완주, *차문화가 동아시아인의 공예문화관 및 조형성에 끼친 영향 연구-한·중·일 차문화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35] 정동주, *차와 차살림*, 한길사, 2013.
- [36] 류건집, *한국차문화 상*, 이담북스, 2009.
- [37] 최진영, *동다의식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38] 정서경, *한국 차문화 기능의 전승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39] 한기정, *조선후기 지식인의 차문화 연구*, 보고서, 2014.
- [40] 석용운, *한국다예*, 초의, 2005.
- [41] 초의 의순 저, 정영선 역, *동다송*, 너럭바위, 2007.
- [42] 육우 저, 김진숙 역, *다경*, 국학자료원, 2014.
- [43] 김용오, *한국의 문화와 차*, 동인출판문화원, 2012.
- [44] 조희선, 이순실, “다도교육이 여고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7권, 제1호, pp.1-17, 2004.
- [45] 백현기, “인성교육을 위한 다도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예다학*, 제2호, pp.17-26, 2016.
- [46] 공귀옥, *차생활이 청소년의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MMPI-A(다면적 인성검사)결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47] 박경희, *다도교육이 비행청소년의 인성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48] 배근희, 최배영, 김길령, *청소년 예절교육*, 새로운 사람들, 2006.
- [49] 이성애, “다도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 순화에 대한 연구,” *한국차학회지*, 제3권, 제2호, pp.53-71, 1997.
- [50] 권영민, “21세기를 향한 통일문화정책-남북한 문화 통합과 민족공동체 문화의 확립-,” *문화정책논총*, 제4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169-186, 1992.
- [51] 오양열,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성과와 과제*, 통일준비 문화관광의 역할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41-56, 2014.
- [52] 김구희, *정부와 민간단체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비판적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53] <http://www.scourt.go.kr/supreme/>
- [54] 박재영,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 - 디지털 전통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제37권, pp.157-190, 2013.
- [55] 정영선, *차자리와 인성교전*, 너럭바위, 2016.
- [56] 이기문 감수,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6.

- [57] 임병덕,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인내 : 키에르케 고르의 관점,” 도덕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도덕교육학회, pp.1-17, 2013.
- [58] <http://dic.daum.net/>
- [59] 최성은, *배려윤리의 도덕교육적 의의와 적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60] 임청숙, *배려의 관계에서 공감 발달을 위한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61] 정민, *조선후기 결명 시문을 통해 본 한국 차인의 멋*, 한국차학회지, 제13권, 제3호, pp.64-65, 2007.
- [62] 콧미숙, *청소년의 통일·인성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차문화의 적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저 자 소 개

##### 콧 미 숙(Mi-Sook Kwag)

정회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2015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학과(문학석사)
- 2016년 3월 :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통일·인성교육, 전통문화, 차문화, 생활문화

##### 주 영 애(Young-Ae Ju)

정회원



- 1985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사)
- 1987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석사)
- 1992년 3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학(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소비자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생활문화, 예절교육, CS